

교회소식

1.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2.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와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3.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65	1, 2, 8, 12, 25	
감사 헌금	CD \$20	1, 2	
장년 출석	가정 예배	어린이 출석	가정 예배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말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 패스워드는 (JESUS)로 해주세요.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부활주일 가정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오늘 주님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채워주소서.	말은이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다와서 찬양해 부활주일 특상영상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함께
대표기도		말은이

누가복음 24:1-10

성경봉독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말은이
------	---	-----

설 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무덤에 머물러	다함께

합심기도	1.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2. 사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3.	다함께
------	--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아멘 -	다함께
------	--	-----

오래전 인류는 해가 사라지는 일식을 보며 하늘에 있는 큰 개가 해를 삼켰다가 뜨거워서 뱉어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그것이 충분히 믿음만한 사실로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식이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것임을 압니다. 더 나아가 태양계의 모습과 은하의 모습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식이 큰 개가 태양을 삼킨 것이 아니라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린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말은 그야말로 믿음이 가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실(TRUTH)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확실성을 따질 때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경험으로 학습되고 검증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감히 부인은커녕 이견을 내기도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인류는 이것을 경험으로 학습하고 검증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이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믿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성과 어긋나는 사실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못하고 수많은 반론들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구요? 사실이니까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양자역학의 법칙들을 놓고 죽어도 믿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구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주장은 “사람은 다 죽고 없어진다”는 인류가 알던 기존의 사실과 달랐기에 엄청난 반대를 겪게 됩니다. “미친 소리”, “집단환각”, “사기”, “기절에 대한 착각”...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소식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비판과 검증, 혹은 반대를 이겨낸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인지능력이 어떠한지간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아는 자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코 큰 개가 해를 삼켰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해가 비출 것을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는 자들에게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죽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될 이 육신에 갇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속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속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